

수만 인파 한꺼번에 몰리며 순식간 도미노처럼 넘어져

사고 어떻게 발생했나

넘어진 인파 위로 겹치지며 압박 하루전부터 조짐 무대책 행정 비판 이상민 장관 "우려할 정도 아냐" 논란

헬러윈을 앞둔 토요일인 29일 밤 축제 분위기로 한껏 들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좁은 도로는 밀려드는 인파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밤 10시 22분께부터 이태원 해밀튼호텔 인근에서 사람이 깔려 호흡 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되기 시작했다. 이미 밤 9시가 넘어서면서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뒤엉키고 있었다. 몇몇은 위험을 감지하고 벽을 타고 넘어가거나 주변 건물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헬러윈을 앞둔 주말인 이날 밤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져 오후가 되면서 인파가 몰려들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튼 호텔 옆 내리막길로 된 폭 4m 정도의 좁은 길 양쪽에는 유명한 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있어 평상시 주말에도 인파가 상당했다. 이날은 헬러윈(10월 31일)을 이틀 앞둔 토요일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태원 헬러윈의 분위기를 느끼려는 젊은이

들이 몰려들었다.

밤 10시께 골목을 미처 벗어나지 못한 앞쪽 여성들을 중심으로 넘어지기 시작하자, 마치 도미노처럼 뒤에서 넘어진 인파 위로 겹치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으나 겹겹이 쌓인 인파에 눌린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없었다.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4분을 훌쩍 넘긴 다음에야 하나씩 구조해 도로로 옮긴 뒤 사할을 다해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경찰과 행정 당국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헬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실제로 금요일인 28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경찰은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당일 현장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우선 경찰은 서울 시내 소요와 시위로 경찰병력을 분산 배치하면서 마약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단속 중심으로 200명의 인력을 일대에 배치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년과 비교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이 아니다"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 참사 발생이후 119구조대원들과 시민, 경찰 등이 구조한 시민들을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다.

(독자=홍근호씨 제공)

이태원을 담당하는 용산구는 지난 27일 '헬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은 없었다. 특히 사고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가 곧바로 마주하는 통로라 사람이 더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

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태원 일대 통행량을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오광록 기자 kroh@

“살려달라” 아비규환에도 바로 옆 거리선 참사 사실 몰라 떠밀리듯 걷다 인근 가게로 서둘러 이동 화 피할수 있어

현장 목소리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변칙적인 소방차 경광등, 맥없이 축 처진 시민들이 계속 떠올라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헬러윈 축제를 즐기러 29일 서울로 향했던 광주·전남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참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홍근호(24)씨는 이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태원으로 갔다가 참사 현장을 목격했다.

홍씨는 “밤 10시쯤 이태원에 갔는데, 사람이 발디딜 틈 없이 많아 떠밀리듯 걸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인근의 다른 가게로 서둘러 이동해서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돌아왔다. 이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로 나갔더니 사방에 경찰과 소방관이 몰려들어 있었고 파란 천에 덮인 시민들이 길가에 일렬로 널브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홍씨는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빨리 귀가 하라고 했는데 버스도 지하철도 못 타게 막아버려서 한참을 걸어서 정신없이 거리를 빠져나왔다”고 회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 거주 A(30대)씨는 “매년 헬러윈 축제 기간이면 이태원을 찾아갔는데 이날은 유독 사람이 더 많고 질서가 없는 것 같았다”고 떠

올했다.

A씨는 “골목으로 올라가진 않고 지하철역 인근에서 놀다가 사고 소식을 들었다”며 “사람들이 뒤엉켜 살려달라고 팔을 뻗고 있고 수십명이 도로에 쓰러진 채 CPR(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또 “방송이나 뉴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을 CPR하는 영상을 계속 틀어주니 깜짝했던 순간이 계속 떠올라서 TV도, 스마트폰도 켜기가 두렵다”며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린 것만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가 났던 골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방통행이 이뤄졌던 것 같은데, 이날은 중심 골목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이태원역 출구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뒤섞여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목포에 거주하는 정호민(27)씨는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이태원역 인근에서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 밤 10시 30분께 관람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정씨는 수십대의 소방차가 이태원역 방향으로 지나가는 걸 목격했다. 정씨는 “사람이 워낙에 많은 데다 음악소리로 커서 그런지 참사 현장 바로 옆 거리에 있었는데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안부를 묻는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뉴스를 보면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는데 지금도 무섭고 떨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유연재 기자 yjyou@

폭 4m·길이 45m 남짓 비좁은 골목 ‘통제불능’

피해 왜 컸나

‘이태원 참사’는 헬러윈을 앞둔 토요일 밤 이태원동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게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장소는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튼호텔 뒤편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로, 폭 4m 내외에 45m 길이다. 넓이로 계산하면 55평 남짓에 불과하지만 변화가와 대로변을 잇는 골목이다 보니 세계음식거리가 있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나와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다. 길 양쪽에는 유명한 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있어 평상시 주말에도 인파로 북적대는 곳이기도 하다.

이 좁은 골목에 헬러윈을 앞두고 어느 순간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람이 몰리며 ‘사람이 떠밀려가는’ 상황을 넘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넘어지면서 대열이 무너

번화가·대로변 잇는 골목길 내려오고 올라가는 인파 뒤섞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참사로

지기 시작했다는 게 현장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29일 밤 10시께 골목을 미처 벗어나지 못한 앞쪽 여성들을 중심으로 넘어지기 시작하자 마치 도미노처럼 뒤에서 넘어진 인파 위로 겹치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으나 겹겹이 쌓인 인파에 눌린 사람들을 꺼내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올린 영상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다.

소방서와 사고현장도 100m 거리로 멀지 않았지만 인파 때문에 구급대가 응급 환자에게 도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정지, 호흡곤란 환자가 300명 가까이 나오면서 1대1

로 해야 하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구급대원도 턱없이 부족해 전문적이지만 시민들까지도 가세해야 했다.

참사 뒤 귀가하려는 시민의 차량이 이태원로에 집중되면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병영으로 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는 게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현장 동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밀지 마세요”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경찰이 200명을 배치하고도 현장을 적절히 통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다. 현장이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돼 최초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만큼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 CCTV를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도 따질 계획이다. /특별취재팀=정병호 jushb@

부동산 매매 컨설팅
경매, 금융
(주)오천. 010-3605-5000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3605-5000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합병 공고

2022년 10월 26일 주식회사 제일메이디에스(이하 "갑"이라 함)와 제일지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5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구주권을 가진 자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과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기간: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 합병방법: (갑) 주식회사 제일메이디에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3층(서초동, 우치빌딩) 대표이사 최동환
(을) 제일지주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로 339, 18층 1807호(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대표이사 김정서

(3) 이의제출기간: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0월 31일
주식회사 제일메이디에스 대표이사 최 동 환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광수(680715-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서문대로 614, 302동 401호(전월동, 신흥타운)
피상속인 망 이광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10월 10일 1078호로 신청하여 2022년 10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0월 31일

· 상속인 : 이주현(990201-XXXXXX)
광주 동구 동명로 69번길 20, 102동 802호(지산동, 지산휴먼시아)
· 신고기간 : 2022. 10. 31. ~ 2022. 12. 3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주현의 주소

합병 공고

2022년 10월 26일 주식회사 제일메이디에스(이하 "갑"이라 함)와 제일지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5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구주권을 가진 자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과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기간: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 합병방법: (갑) 주식회사 제일메이디에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3층(서초동, 우치빌딩) 대표이사 최동환
(을) 제일지주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로 339, 18층 1807호(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대표이사 김정서

(3) 이의제출기간: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0월 31일
제일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 서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 배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6-3761	· 신 안 222-0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북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382-5788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아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삼 우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